로코퀸' 김아중 도발적 매력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www.metrobusan.co.kr

'너무 비싸' 추신수 이상기류

보성 차밭 'LED쇼'

'설국'으로 변한 광화문 녹인 환상의 선율

메트로신문 송년음악회 성료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가 11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지레이(앞줄 가운데) 지휘자가 이끄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이날 출연한 소프라노 서활란(앞줄 왼쪽 둘째)과 테너 김남진(앞줄 왼쪽)이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사진/메트로 ...

끊김없이 多 되는 N스크린 세상

PC로 보던 영화 스마트폰서 그대로 이어보고 ·오프라인 사무실 없어도 클라우드 이용해 업무 공유

직장인 강지원(35)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 9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을 퇴근 후 집에서 PC로 내려받았다. 30분쯤 감상하고 있을 때 내일 오전까지 처리해야 할 보고서가 생각났다.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강씨는 어제 보다 말았던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다시 이어서 감상했다. 아직 전체 분량 중 20%가 남은 상황에서 강씨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태블릿 PC의 큰 화면으로 수양대군(이정재 역)의 반전을 지켜봤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0월 신문로에서 광화문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부서별 공간과 개인 책상을 없앴다. MS 직원들은 그때그때 빈자리에 앉아 가상화 공간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로그인 후 업무를 본다. 회의는 주로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한다. 오프라인 회의실에는 책걸상과 스크린만 있다. 개인 태블릿 PC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클라우드를 이용해 즉석 공유하는 식이다.

개인 지정석 없이 N스크린 방식으로 근무하는 한국MS 신사옥의 모습(위)과 컴퓨터-스마트폰 호환이 특징인 삼성전자 아티브 브랜드. /각사 제공

N스크린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N스크린이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단말기에서 끊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돌리는 묘기처럼 N스크린은 디바이스 위치가 달라도 1분 1초의 중단 없이 콘텐츠를 다룰 수 있게 한다.

개인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책을 비롯해 최근에는 손목시계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출시되면서 N스크린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으로 급부상했다. 국내 통신사와 현대중공업 MCM 브랜드 신한은행 등이 N스크린 경영으로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다국적 인프라 기업 VM웨어 팻 겔싱어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V포럼 2014'에 참석해 "하드웨어를 쥐어짜는 가상화 비즈니스가 IT 산업 3세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위치와 단말기 여부를 떠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가상화 환경이 새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올해 IT 흐름은 N스크린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연초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연동을 강화한 PC 브랜드 '아티브'를 선보였다. 아티브 시리즈는 '사이드 싱크' 기능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하나처럼 사용하게 한다.

컴퓨터 마우스 버튼을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게 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곧바로 컴퓨터에 옮기는 방식이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의 데이터 연동 기능으로 완성도 높은 이용자 구축에 성공했다.

네이버가 2009년 선보인 무료 웹 파일 관리 공간 'N드라이브'는 하루에만 400테라바이트(TB) 2000만 장 사진이 올라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곧바로 N드라이브에 올라와 이미지 작업에 쓸 수 있다. 다음도 2011년부터 다음 클라우드를 서비스 중이다.

한국MS 사옥을 설계한 경우진 컨설턴트는 "어디서나 항상 연결된 온 오프라인 공간은 업무 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면서 "N스크린 적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국민은 도구가 아니다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요즘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심상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을 부산에서 시작한 후 의료계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해 의사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심산이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호락호락 당할 정부가 아니라서 둘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의료계의 요구가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사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귀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뿐일까. 의료계가 국민 건강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지금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행진을 진행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지만 보여주기식 반짝 소통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의사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는 국민들의 입장을 먼저 들은 후 행동하는 것이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결코 국민 건강이 의료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전재국 미술품' 경매 11일 오후 서울 신사동 K옥션 본사에서 열린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 경매에서 작가 김환기의 유화 '24-Ⅷ-65 사우스이스트'가 5억[illegible]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오늘 국회특위에 자체개혁안 보고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업무보고와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내일 오전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기로 했다"며 "그 전까지는 국회나 당에 별도로 개혁안이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의원은 "자체 개혁안은 참고용이며, 국정원 개혁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뉴스 & 뉴스

충청도 오늘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 12일부터 충북 출입국 시 출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7세 이상인 우리 국민은 먼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www.ses.go.kr)에 등록한 뒤 충주 [illegible]구 인경사무저 홈페이지(www.[illegible]d.go.kr)에 접속, 온라인으로 자동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끝나면 대면 심사 없이 자동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 심사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기능·계약직 공무원 50년만에 일반직 통폐합

● 50년 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통폐합된다.

11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능직은 고유 업무를 담당한 경우 신설된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도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사용하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기 동안 신분이 보장된다.

설국' 여기가 어디지? 서울 지역에 눈이 내린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출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한폭탄' 안은 공공기관

과다부채 12곳·방만경영 20곳 내년 3분기 평가…부진한 기관장 해임

"과다 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을 산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런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듯 정부는 이날 565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우선 부채 관리에 나선 곳은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이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현재 4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장기재무 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 증가율 당초 전망 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 사업 근본적 개편 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행여부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 중 중간 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해임 건의키로 했다.

/김대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주요내용

[illegible]

자료/기획재정부

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 개선 특별조사

불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0일까지 3400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유통업계의 불공정 개선 지침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후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 조사 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 분야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에는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TV 홈쇼핑 납품업체 조사에서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이 있을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의 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도 내년 상반기 중 벌일 계획이다.

/정은영기자 [illegible]

SC·씨티은행 고객 대출정보 13만 건 유출

금융사기 악용될 가능성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고객 대출 정보 13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C은행은 최근 10만여 건, 씨티은행은 3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혐의로 위·수탁업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창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대출 고객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씨티은행 차장 A(37)씨와 SC은행 IT센터 수탁업체 직원 B(40)씨가 금융실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대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 1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C(38)씨와 D(38)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씨티은행은 컴퓨터 파일 자체를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했으나 A씨는 A4용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SC은행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 접근을 제한했지만 전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이를 조작, 해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유출한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대출액, 대출 이율, 대출 잔액, 대출 일자, 대출 만기일자, 직장명 등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이들 은행의 해당 고객 대출 관련 정보가 모두 흘러나가 향후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관련 법규 보완과 감시체계 정비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SC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스마트폰 교통사고' 연 848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 인구가 약 340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사 자동차 대인사고 77만5372건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지난해 848건으로 3년 사이 1.9배로 증가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고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38.6%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전체 사용자의 21.7%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20대의 인터넷 검색, 문자메시지 이용 비율이 49.1%로 연령대 중 가장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현정기자 hj@

"너희 참 산기하구나"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키즈 사이언스 아쿠아리움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지리 출제오류' 첫 소송 수험생 패소

올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하는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A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를 거쳐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오답 처리되면서 3등급을 받아 2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A군은 세계지리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며 지난 2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철

시안사변 발발

1936년 12월 12일 중국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이 국민당 정권의 총통 장제스를 신시성 시안에서 납치 감금했다. 일본군에게 아버지를 잃은 장쉐량에게 마오쩌둥의 홍군(공산군) 토벌에만 몰두하는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중단과 항일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장제스는 풀려난 뒤 약속대로 제2차 국공합작을 체결해 일본군을 몰아냈으나 그 후 홍군은 세력을 회복해 중국 본토를 점령했고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한방칼럼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한의학박사 허형구 원장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은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편두통이나 현기증, 목 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구안와사,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피부질환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절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동방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 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나지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나 대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한 정도의 금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결원성 빈혈 질우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담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전체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굳은 변이나 숙변이 고이 있게 되어 온 몸에 유해한 물질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삐걱'

부산시·해운대구 점·사용료 감면 갈등
시행자 "비용 부과는 사업하지 말란 얘기"

특혜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속도를 낼 것 같았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공유 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부산시와 해운대구 간 갈등으로 사업 좌초까지 우려되는 위기를 맞았다.

사업 시행자(우선 협상 대상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컨소시엄 측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연내 부산시와 체결할 예정인 실시 협약에 '요트경기장 공유 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확약이 없으면 협약은커녕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자 측은 "사업 수익과 관련한 논란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 해결했지만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가 주장하는 사업 구역 내 공유 수면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는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가 합의한 '재개발 사업 후 적정 사업수익률'(30년간 7.11%)에 따른 연간 순수익(수익에서 비용·법인세·차입 원리금·자본금을 뺀 수익)은 12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유 수면 점·사용료는 연간 70억원에 달한다.

사업 시행자 측은 "30년의 운영 기간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연간 70억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된다면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점·사용료가 부과되면 적정 사업 수익률 7.11% 확보를 위해 점·사용료를 요트·보트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하거나 찾아올 요트·보트가 몇 대나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그동안 전문체육시설(요트·보트 계류 용도)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아 왔다.

부산시가 허가 관청인 해운대구로부터 받아놓은 경기장 내 공유 수면 9만8334㎡에 대한 점·사용료 전액 면제 시한은 2017년 12월까지다. 재개발사업 준공은 2015년 말로 예정돼 있고 해운대구는 2017년 이후 점·사용료 면제와 관련한 확약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유 수면 점·사용료 면제를 전제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부산시는 특히 점·사용료 문제와 관련 강경한 태도인 해운대구의회에 재개발사업의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의 필요성, 재개발에 따른 해운대구의 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설명기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시가 당초 추진했던 실시협약이 계속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해운대구와의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큰 실정이다. /연합뉴스

실버종합물류 채용박람회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제2전시장 4C홀)에서 '2013 부산 실버종합물류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노인 일자리사업 우수 사업단을 홍보하고 어르신의 주체적 사회참여 유도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하고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연제시니어클럽이 공동 주관한다.

'중장년 인생 2막, 희망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행기관)와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와 교육, 자원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민은 행사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벡스코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851-2190

오늘부터 방사선 탐지훈련

부산시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시 전역에서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2013년 광역단위 합동 환경 방사선 탐지 훈련'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평시·비상시 환경 방사선 조기 탐지 체계 구축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방사능 재난 시 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시가 주관하고 16개 구·군, 다른 시·도 원전 소재 지자체, 군(육·해·공), 경찰, 고리원자력본부 등 28개 방재 관련기관과 전문기관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해양테러 우리가 막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부산 영도구 국제크루즈부두 앞바다에서 유관기관 합동 해상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다. 테러범이 국제여객선을 탈취한 후 폭탄을 설치 및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날 훈련에는 부산해경, 남해특공대 특공대, 해군, 소방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비함정과 고속 보트 등 인원 97명이 동원됐다. /부산해경 제공

"미신고·휴업 가축시설 보상대상 제외 부당"

권익위 기장군·농민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기장군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면서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휴업 중인 가축사육시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신고나 휴업 중인 가축사육시설도 모두 보상해 주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장군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자 신도시 인근 축사 주변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했다.

기장군은 이 과정에서 기존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해 시설 폐쇄나 이전을 추진한 반면 이번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부 축사 시설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축사 주인 3명이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축사시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 없이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8월에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가축분뇨법상 이전 보상 여부 판단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는지는 기준이 아니며 가축분뇨법상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법제처와 환경부에서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이전 명령 시 무허가·미신고 및 휴업 중인 시설도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했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때문에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해온 주민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정당한 보상을 통해 폐쇄·이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리 음식 특화거리 활성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해안도 걷고 할인된 가격에 맛있는 음식도 즐기세요."

부산 영도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걷고 싶은 부산', 중리 맛집거리 상우회, 한국 외식업중앙회 영도구 지부 등과 함께 '음식 문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약식'을 열었다.

동삼동 중리 음식특화거리는 동삼동 KT에서 해녀촌까지 600m 구간으로 해안절경을 마주하고 태종대유원지, 국립해양박물관, 동삼혁신도시 등과 가깝다.

4개 기관·단체는 중리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중리 음식특화거리 인근 인증대에서 갈맷길 스탬프를 수첩에 찍으면 음식값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최근 걷기 좋은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갈맷길과 연계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부산 영도구의 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 음식, 해상의 입지, 합리적 가격 등을 강조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중리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11월 지역 실업률 3.1%…올들어 최저

부산지역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 실업률이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1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중 부산지역 취업자 수는 16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2000명(1.4%) 증가했고 전달에 비해서도 1만5000명(0.9%)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3만2000명(2.4%)이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과 광공업은 각각 5천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56%로 지난해 같은 달의 55.6%나 앞달의 55.5%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부산지역 실업자 수는 5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2000명(18.1%) 줄었고 전달에 비해서도 6000명(1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고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 실업률은 남자가 3.2%로 지난해 같은 달의 4.8%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자는 3%를 기록해 지난해의 2.4%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속도'

시 이달 중순까지 강서 물류도시 5공구 입주기업과 협약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신발산업 집적화단지가 조성된다.

부산시는 12월 중순까지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5공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입주계약 및 용지 매매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기업은 유턴기업 3개사, 역외기업 1개사, 확장기업 4개사 등 총 8곳이다. 이들 기업은 내년 10월께 착공, 2015년 6월께 완공 예정인 신발산업 집적화단지(8만1840㎡)에 우선 입주하게 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애든 신발 산업이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면서 고급 인력 공급 및 첨단 기술 개발이 용이한 부산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았으나 입지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한국신발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을 건의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기업들의 입지난을 해결했다.

시는 앞으로 신발 산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신발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 바이어들이 영세한 신발업계를 방문해 품질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계약 성사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바이어 유치 및 계약 성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신발 산업 집적화단지를 통해 부산 신발 산업이 글로벌시장에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발산업은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유리한 분야다. 전·후방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효과가 24개 산업군 중 1위인 산업이고,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고용안정 차원에서 육성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시스

석면 가득한 건물 '부실' 철거 울산 동구 방어동 철마진짜에 있는 세광중공업 사무동 철거 현장에 지난 10일 석면이 미루릴거나 굴게진 채 그대로 남아있다. 바닥에도 석면 조각이 현지에 잠시 널려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다 석면폐, 늑막이다 흉막에 검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뉴시스

교육부 "맹학교 성추행 관련자 12명 징계하라"

교육부는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장애아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 사건을 은폐한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9일간 특별 감사를 해 가해 교사, 사건 은폐를 주도한 교장과 교감, 성추행 제보 교사를 협박한 교무기획부장, 피해 학생 상담을 부당하게 진행한 보건교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피해 학생 개인정보와 녹음파일을 외부로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성추행 사건을 축소해 종결한 전담 기구에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성추행 사건 수사 개시 통보 문서를 방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피해 학생 조사 때 가해 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학교 교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오늘 평생학습 실천대회

부산시는 12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우리 함께 걸어요, 행복학습 road'라는 주제로 '제2회 부산시 평생학습 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부산시 주최, 부산시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평생교육인과 시민이 함께 '행복 평생학습의 길'을 모색하고 학습을 통해 변화된 평생학습 실천 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마련된다.

두툼한 호부추의 참맛

롯데호텔부산 중식당 도림 특선 내달말까지

롯데호텔부산(총지배인 김정환) 중식당 도림에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두툼한 호부추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호부추 특선'을 진행한다. 겨울철 특히 인기를 끄는 호부추는 일반 부추보다 두툼하고, 잔뿌 부리 부분이 길어 아삭하게 씹는 맛이 일품이다. 특히 센 불에서 튀기거나 볶아도 식감이 살아있어 중국 요리에서 특히 선호된다.

롯데호텔부산 도림에서는 푸짐한 쇠고기와 아삭한 부추가 식감을 자극하는 쇠고기 부추잡채(5만9000원부터, 이하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살이 오른 새우와 가리비, 각종 해물이 어우러져 부드러움과 부추 자체의 씹는 맛을 살린 삼선 부추잡채(8만5000원부터), 싱싱해서 더욱 쫄깃한 맛을 전해주는 전복과 잘 어우러진 부추의 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전복 부추잡채(8만5000원부터)를 선보이고 있다.

문의 및 예약: (051)810-6340

/박찬균기자 jsk@metrobusan.co.kr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77.97 (-15.48)
코스닥 494.78 (-2.94)
금리 3.97 (+0.02)
환율 1051.00 (+0.50)

한국 'FTA 경제영토' 세계 3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영토 규모가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경제영토는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총합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모두 46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78.5%), 멕시코(64.1%)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FTA 경제영토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17%)의 3.4배에 달한다.

현재 협상 중인 중국과 FTA를 조기 타결할 경우 FTA 경제영토 비중이 74%까지 올라가 1위에 근접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콜롬비아와 FTA를 타결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은미기자

뉴스&뉴스

이스라엘산 스위티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식품관 청과 코너에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산 자몽계 과일 '스위티'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단독 실손보험료 동결될 듯

● 내년에 단독 실손의료보험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에 단독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은 나이가 많아진 데 따른 증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 조정에 앞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손해율 등 통계치가 필요한데 단독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료 조정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손해율 통계치가 요구된다. /김민지기자

"다시보자, 환차익 투자상품"

위안화 환율 연동 금융상품 잇단 출시

'환의 전쟁'에 환율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관련 상품에 쏠렸다. 반면 엔저 장기화에 엔화 펀드 중에서는 '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상품이 인기다.

중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 달러화 대신 위안화 거래를 늘리면서 위안화 강세는 점진적으로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향후 달러화 강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서도, 위안화와 한국 원화의 강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신흥국 중 아시아 시장이 차별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징후라고 풀이했다.

11일 KDB대우증권은 "국제 금융거래 조사기관에 따르면 위안화가 교역 결제 기준으로 유로화를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했다"며 "아직 전체 금융 결제 통화에서 위안화 비중은 1%에 못 미치지만 위안화 거래 증가 추세는 그만큼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하거나 금리를 변동해도 신흥국 중 아시아 시장의 환율 변동폭이 예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발 빠르게 위안화 환율에 연동하는 금융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등은 지난달부터 위안화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사채(DLB)를 출시했다. 모두 만기 1년의 원금 보장 상품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0.3~0.6% 이상만 오르면 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테이퍼링 우려에 약세를 보이는 엔화에 투자하는 일본 펀드는 환헤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이날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환헤지형 일본 펀드 34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평균 7.08%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4.24%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 환 노출형 일본 펀드 3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평균 0.58%로 저조한 성과에 그쳤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엔저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상반기 엔화 약세는 유럽 경제 부진에 따른 유로화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므로 오는 18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엔 약세 심리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벽산건설 주가조작 여부 감시

금융감독원이 벽산건설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정밀 감시에 나섰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벽산건설 주가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카타르의 '알다파그룹'은 투자 전문 계열사인 '아키드컨설팅'을 통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시가 나오기 전인 6월부터 벽산건설 주가가 상승, 인수·합병(M&A) 소식 전후로 4배 넘게 급등한 상태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0
발행·편집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부산지사장 직대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86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61

삼성 소치 장애인올림픽 맵 공개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액세서빌리티 맵(Accessibility Map)'을 공개했다. 관람객들이 액세서빌리티 맵을 체험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워크아웃 진통…결국 상장폐지로 가나

Issue&View
법정관리 문턱 선 쌍용건설 (상)
/박선옥기자 pso9620@metroseoul.co.kr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자본 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5000억원의 출자 전환 및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재권단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를 확정 짓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 워크아웃에 갈등 지속

이번 논란은 새로운 게 없다. 지난 2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때부터 채권단 일부는 법정관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다른 채권은행을 설득해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는 했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워크아웃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비협약 채권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군인공제회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군인공제회 가압류, 시나리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을 본인들이 원하는 법정관리로 유도하기 위해 채권단이 군인공제회를 자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에 돈을 빌려준 군인공제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출자 전환에 동참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왔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법원 결정대로 채권단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우리은행 담당 부행장이 모인 자리에서 군인공제회 사업본부장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소문이 퍼졌다"며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에 놀아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카레이싱 '별들의 잔치'

모터스포츠어워즈 열려

2013년 국내 모터스포츠를 되돌아보는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돼 모터스포츠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지피코리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가 주관하는 제8회 한국모터스포츠어워즈 2013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을 오가며 치러진 국내 양대 카레이싱 대회에서 활약한 영광의 얼굴들을 뽑는다.

12일 저녁에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3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어워즈가 열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CJ슈퍼레이스와 함께 양대 모터스포츠의 큰 축을 이루는 대회다.

국제자동차연맹 산하 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회장 변동식)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13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을 개최한다.

국내 모터스포츠 주관 단체인 KARA의 공식 송년 이벤트로, 국내 정상급 드라이버와 레이싱팀, 프로모터 등 자동차 경주 관계자 400여 명이 함께한다. /정치연기자 ferrari@

지상파 중간광고 공 넘겼다

정부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서 허용 여부 언급 자제…방통위 손에

정부가 10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지상파 중간 광고와 관련, 언급을 자제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이날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다채널방송(MMS)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디지털 전송 방식 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 등을 담았다.

사실 이날 발표에 앞서 업계는 미래부가 추진 중이던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여부는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의 손으로 넘기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여부는 전체 방송과 규제, 제도 개선 측면에서 실무적·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만큼 세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지난 15일 방통위 전체회의와 지난 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간담회에서도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여부와 관련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없는데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내 안타깝다"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가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마저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송 시장 구조에서도 지상파는 광고 매출과 점유율에서 압도하고 있는데 지상파 중간 광고마저 정부가 허용한다면 독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현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전자 해외영업 전열 재정비

지역 총괄 5명 보직인사

사상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한 삼성전자가 후속 조치로 11일 정기 조직 개편 및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권오현 부회장·윤부근·신종균 사장 등 현재 3명의 대표이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부문에서만 큰 폭의 보직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우선 사상 최대 성과를 이끈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지역 총괄 중 5명이 자리를 이동하는 큰 폭의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북미 총괄, 구주 총괄, 동남아 총괄, 중동총괄, 한국 총괄이 변경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개편에서 '디지털이미징사업부'를 무선사업부 산하로 통합해 '이미징사업팀'으로 재편했다.

DS부문은 메모리 사업의 고성과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메모리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파운드리 등 신성장 동력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기능을 보강했다.

메모리사업부는 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해 '솔루션개발실'을 신설했다. S.LSI사업부는 시스템온칩(SoC)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뎀개발실'을 신설했고, 파운드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 기능을 이관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했다.

삼성전자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 간 거래(B2B)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완제품 부문 B2B 사업을 총괄하는 '글로벌B2B센터'를 준사업부 개념으로 운영한다. /김태균기자

'나눔 트리'로 사랑 전합니다 LG디스플레이 사업장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께 바라는 소원이 빼곡히 매달린 '나눔 트리'가 있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은 나눔 트리 속 사연들을 읽고 회장의 산타로 변신,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한다. /LG디스플레이 제공

"긍정의 언어는 조직문화 혁신 원동력"

CEO 추천 '내 인생의 책' 조영기 CJ E&M 넷마블 대표 - '말의 힘'

"긍정적인 단어나 말은 듣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활기와 웃음을 주고 넘치는 에너지를 선물합니다. 특히 경직된 조직사회에서 경영자나 리더들의 진정한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는 구성원들에게 상상 이상의 에너지와 활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통해 조직도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을 자연스럽게 얻습니다."

최근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 마블' 등으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CJ E&M 넷마블의 조영기(47) 부문대표는 한 어반의 저서 '긍정적인 말의 힘'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을 새삼 다시 깨달았다.

회사 업무 처리 후에도 꼭 틈을 내 독서 시간을 마련한다는 조 대표는 상대방을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칭찬하고 존중하는 말로 긍정적인 월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추천했다.

특별한 원자재나 공장 설비가 없이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게임 사업은 구성원과의 소통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인사 쪽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 조 대표는 "인사가 만사고 결국 사람이 보물"이라며 "게임업의 특성상 젊은 구성원들이 많아 긍정적 소통이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한다.

조 대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 사고다. 한 사람의 부정적 사고는 바이러스처럼 주변에 나쁜 공기를 퍼뜨리고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불만에 가득차게 한다.

조 대표는 "사람이 전부인 게임 산업의 경우 이런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참여력과 열정을 깨지는 가장 나쁜 적"이라며 "긍정적인 생각의 원천은 사소한 칭찬, 격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를 실행에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따뜻한 말에 넷마블 임직원들이 감동한 것일까. 2년 전만 해도 국내 메이저 게임사 빅 5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매 분기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지난 3분기에는 매출 1511억원, 영업이익 321억원이라는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의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매출만 놓고 보면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빅 3와 견줘도 크게 멀리지 않으며 온라인게임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모바일게임이 주력인 것을 감안하면 영업이익도 단연 발군이라는 평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조영기 CJ E&M넷마블 대표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은 어떤 긍정의 말을 전할까를 생각한다. /CJ E&M 제공

화제의 책

40대, 경제판을 알아야 투자를 안다

마흔 남자는 경제 판을 읽는다 홍승퍼 / 청년 트윈어브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피부 경기는 왜 냉랭할까.

이 책은 이 같은 의문을 지닌 대한민국 40대 남성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경제 상식과 개념들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 판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지배하는 힘과 논리에 변화가 발생한 만큼 경제 구조와 금융시장의 원리부터 사소한 금융 상식까지 더욱 깊은 이해를 갖춰야만 몰라서 자산을 놓치거나 잃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마트폰 시대에 공중전화를 찾아 낯선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한 펀드에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나 수익률이어서는 곤란하다. 가입한 펀드의 수탁액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수탁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탁액이 단기간에 급증할 때는 대규모 기관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반대로 수탁액이 급감한 경우에도 이유가 무엇인지 운용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펀드에서 대량 환매 사태가 일어나면 매니저는 보유 종목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남은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탁액을 점검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이처럼 저자는 경제 주체인 40대 남성들이 지닌 여러 가지 의문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금융위기 이후 맵져진 경제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는 혜안을 갖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비즈니스 숨쉬는 런던 사례로 짚어보기

런던 비즈니스 산책 박지영/한빛비즈

런던에는 비즈니스와 디자인이 살아 숨 쉰다. '런던' 하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여왕이 사는 노시 정도가 떠오르지만 사실 런던은 골목마다 상업적 영감과 미적 감각이 듬뿍 배어있는 도시다.

저자는 런던은 그 자체가 비즈니스 도시라고 표현한다. 귀족 문화가 진재한 보수적인 공간이면서도 거리를 거닐 때마다 상업적 통찰을 던지는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혁신적인 청소기 브랜드 다이슨이 탄생하고 예술가도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데이미언 허스트가 나왔다.

이 책은 비즈니스 화두를 던지는 27가지의 통통 튀는 런던 사례를 감각적인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런던의 방식을 우리가 반드시 좇을 이유는 없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최윤희기자 unique@

직장인을 위한 신간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윤재수/길벗

주식 투자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이 책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펀드와 주식의 차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구분, 홈트레이딩 시스템, 종목 고르기 등 주식 초보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법한 내용들을 다양한 도표와 일러스트로 설명한다.

별책 부록으로 개미투자자가 참고하면 좋을 유망 ETF 요약본이 수록됐다. 증권업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저자가 전작 베스트셀러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의 속편으로 내놓은 최신 개정판이다.

유틸리티 마케팅이 온다 게마 복가/처음북스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쌍방향으로 얻는 시대에서 소비자는 기업의 일방적인 광고를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책은 현대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란 물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 제품 소개와 브랜드 홍보만으로는 마케팅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용성과 신뢰성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저자는 이를 '유틸리티 마케팅'이라 정의하며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간다.

주목 / 이 한 줄

이기는 질문 이기는 대답 후쿠이다 다츠야·사쿠라이 히로시/서가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신없이 수다를 떨게 됩니다. 질문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혹시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습니까?"

"나는 약속 전날 밤에 미리 질문을 생각해 둡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2쪽

"많이 아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순히 양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터득한 사람보다 상황에 맞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얻는 열매가 더 많고 무수한 말을 쏟아내기보다 핵심만 짚어 대답하는 경우가 제대로 된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CNS 화술연구소 지도사장인 저자는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대화를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질문과 대답법도 조언해 준다. 특히 이런 걸 물으면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등 질문에 대한 두려움을 지녔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힌 경험이 많은 독자라면 저자가 제시하는 소통 노하우와 연습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국명기자

'에너지 한파' 몸살앓는 유럽

글로벌 이코노미

매서운 겨울 한파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한파'에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전기세를 내지 못해 추위에 떨던 시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연일 발생했고 영국에서도 '난방 빈곤층'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최근 그리스 제2도시인 테살로니키의 단전된 가구에서 화재와 가스중독 사고가 잇따랐다. 시민들이 난로를 피워 생활하다가 가스에 중독되거나 형광등 대신 켜둔 양초가 쓰러져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2010년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늘리는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지난 8월 27.3%로 치솟았고 빈곤층 가구 비중도 지난해 23%로 증가했다. 그리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5만여 가구가 요금 미납으로 단전됐다.

영국도 난방 빈곤층 문제가 심각하다. 영국 일간 미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겨울철 사망한 사람은 약 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싼 전기세와 가스비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윔블던에 살고 있는 오정균(31)씨는 "영국은 한국처럼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라 라디에이터나 히터로 안방과 거실을 부분적으로 난방한다"면서 "도심의 아파트는 괜찮지만 오래된 주택의 경우 단열 처리가 잘 안 돼 있어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밝혔다.

오씨는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3인 가정의 경우 가스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 한 달 가스비가 30파운드(약 5만원) 정도 나온다"면서 "주택에서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 가스비가 100파운드(약 17만원)는 족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덜덜 떨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1년 유럽에서 겨울철 사망한 사람 중 30%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가정에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숨졌다. /조선미기자 seonmi@

한화 '의리스마스' 행사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통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한다. 솔로를 위로하기 위해 제작한 페이스북 영상 '메리 의리스마스' 편을 공개하고,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태균기자

은행 특판연금 들어볼까

연말 맞이 환전 이벤트도

금융업계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판매 상품·환전 이벤트, 스키장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4일까지 연 2.85% 금리를 제공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키위정기예금'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우리은행 측은 "1인당 1계좌에 한해 최고 2000만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어 소액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면서 "총 3000억원 한도 범위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1월 10일까지는 우리토마스적금, 우리드림라이프적금, 우리톡톡미즈적금을 새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연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환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공동으로 내년 2월 말까지 달러, 유로, 엔화 등 최대 70%, 기타 통화 최대 40~50%의 환율 우대를 실시한다. 외환은행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환전하는 고객에게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도 이 기간 하이브리드 카드인 씨티 체크+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에게 국제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면제해준다.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에겐 미화 1000달러 상당액까지 환전 수수료 100% 우대와 기타 통화 50%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주요 카드사에서는 스키장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롯데카드는 내년 3월 폐장일까지 스키장 리프트 렌탈, 강습 비용 등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등 총 15개 리조트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전국 9개 스키장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레이디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리프트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각종 이용 요금을 10~50% 할인해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50돈짜리 말발굽 골드바 11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말발굽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1돈부터 5돈, 10돈, 50돈까지 4종류로 31일까지 판매한다. 모델이 들고 있는 것이 50돈짜리 말발굽 골드바다. /연합뉴스

11월 취업자 전년비 58만 8000명↑

● 2013년 취업자 증가수

우리나라의 지난달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확대된 수치다. 이에 반해 실업자는 7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11일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55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이후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에 26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 36만 명, 7월 36만7000명, 8월 43만2000명, 9월 46만3000명, 10월 47만6000명 등 6개월 연속 증가폭이 커졌다.

취업자 수 증가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태균기자

마리화나, 맘껏 피워라

우루과이 세계 최초 합법화…등록만 하면 6그루 재배·월 40g 구입 가능

우루과이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날 상원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우루과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한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6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으며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안 지지자들이 몬테비데오의 의사당 앞에서 대마초 모양을 본떠 만든 손팻말을 들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마약 관련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 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루과이 내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루과이 국민의 3분의 2는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반대한다.

하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지하 시장의 암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무히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새로운 실험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권자 다수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내년 11월 미국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이니셔티브(CCHI)' 서명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았다.

여론조사기관 '필드 리서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 1002명 중 56%가 CCHI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미기자 [email illegible]@metroseoul.co.kr

11일 남아공 프리토리아 유니언 빌딩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가운데 부인 그라사 마셸 여사가 조문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만델라의 시신이 든 관을 운구하는 영구차가 오토바이가 선도하는 가운데 프리토리아 군병원을 출발하는 모습. /신화·AFP 연합뉴스

만델라 시신 3일간 공개

프리토리아 대통령궁서 내일까지 일반인 조문 받아

영국 BBC가 120명을 투입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 행사를 집중 방송한 것과 관련, 시청자들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BBC는 만델라 대통령 타계 후 10일 추모식까지 취재 및 제작 인력 120명을 투입했다. 다른 방송사들은 10명 내외를 남아공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 기간 BBC에는 13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상당수는 만델라 관련 소식이 너무 많아 영국 국내 뉴스들을 접할 수 없고, 추모식 날 영국을 강타한 추위 소식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항의 민원이었다. 인기 시트콤이 만델라 뉴스 때문에 너무 자주 중단된다는 불평도 나왔다.

이에 대해 BBC는 "만델라 타계는 영국은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쏠려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 관심을 갖고 충실히 보도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공식 영결식을 마친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유해는 프리토리아 대통령궁에 안치돼 11일부터 사흘간 일반인의 조문을 받는다. 15일에는 만델라의 고향 쿠누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조선미기자

문제의 셀카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0일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왼쪽) 영국 총리, 헬레 토르닝-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함께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눈폭풍' 미 연방정부 또 문 닫아

항공 1000여 편 취소

미국 수도권과 동북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북부와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는 오전부터 폭설이 쏟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20㎝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는 이날 하루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등의 대부분 학교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휴교했다.

잭 마켈 델라웨어 주지사는 "폭설로 도로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 정부 운영을 하루 중단한다"면서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플라이트어웨어닷컴에 따르면 이날 하루 눈폭풍으로 전국의 공항에서 1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와 맥클린 지역에서는 눈폭풍으로 도로가 꽁꽁 얼어붙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워싱턴DC 등에서 이날 예정됐던 정부·민간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됐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공항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조사청문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미 의회 예산안 잠정타결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안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10일(현지시간)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은 성명에서 2014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1조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 정치권은 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2주가량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겪었다.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조선미기자

애플 직원 '코믹비디오' 유튜브 강타

metro France

애플에서 일하는 한 프랑스 남성이 매주 코믹한 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려 인기를 얻고 있다.

리옹에 사는 메디 줄라안 주딜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한다. 간결한 이름의 비디오 '아이 맨'(i맨)'에 그가 전자제품을 팔며 만난 다양한 손님들과의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 등 독특한 고객 유형이 눈에 띈다.

이달 초 시작된 비디오 업로드 수는 벌써 12편에 달한다. 매주 한 편 일요일 유튜브 등을 통해 업로드되는 동영상은 에피소드 당 5분 정도다. 동영상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매하 손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비르 일베넬트르 브루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감성 결합된 첨단기기 또다른 즐거움 '솔솔'

Issue&View
디지로그에 빠진 IT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브라더 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만든 카드가 쌓여 있다. /브라더코리아 제공

"가는 뭐 하니? 결혼은?"

얼마 전 15년 만에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였다) 동창을 만났다. 대학 시절 이후 처음 만났는데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놀랐다.

더욱 신기한 것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까 하고 시계를 봤더니 3시간이 흘렀다는 점이다. 오랜 친구와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 모양이다.

과거 '기억' '추억'이라는 테마가 대화에 끼어들면 어지간해서는 중도 하차를 하기 어렵다.

IT 분야만 해도 '디지로그'라는 말이 유행이다. 아이폰 케이스 제작사로 유명한 벨킨은 최근 레고 장난감을 접목한 케이스를 선보였다. 케이스 윗부분을 레고 판으로 만들어 실제 레고 블록을 끼워 장난감처럼 즐길 수 있다.

e메일 생탄 카드, 카톡 연하장을 흔히 주고받는 시대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눌러 쓴 글이 담긴 종이 카드가 주는 특유의 진정성은 느끼기 어렵다.

글로벌 프린터·복합기 브랜드 브라더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연하장을 누구나 공짜로 만들 수 있게 돕는 브라더 크리에이티브 센터(www.brother.com/creativecenter)를 운영하는 이유다.

크리스마스, 새해 등 주요 시기에 맞춰 간편하게 손카드, 엽서, 달력, 포스터, 앨범, 스크랩북을 만들 수 있고 종이접기나 스도쿠와 같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카메라 제작사 캐논이 운영하는 크리에이티브 파크(cp.c-ij.com/en/index.html)는 동심을 자극하는 3D 팝업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이제는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도 예외는 아니다.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3'에 달린 펜은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야 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연필, 샤프, 볼펜과 같은 필기도구에 익숙한 이들에게 '끄적거리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재미+기부 '퍼네이션' 떴다

삼성 '스마트TV 크리스마스 위시' '라인 산타클로스' 등 이벤트 잇따라

연말이 다가오는 이맘때면 다양한 기부 행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최근 '기부도 재미있게 하자'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퍼네이션'이 인기다. '재미(Fun)'와 '기부(Donation)'가 만나 기부금의 규모보다는 '어떻게 기부하는가'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부를 할수록 장식이 화려해지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스마트 TV 내에 설치, 나눔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27일까지 진행하는 '삼성전자 S'데이 스마트 TV 크리스마스 위시' 이벤트가 주인공이다.

이번 행사는 2012~2013년형 삼성 스마트TV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직접 삼성앱스TV에서 '크리스마스 위시' 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위시 앱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동참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앱 화면의 포인트 막대가 올라가면서 크리스마스트리의 장식이 점차 풍성해진다.

이벤트 참여 횟수가 매 1000건에 도달할 때마다 사회복지단체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대형 스마트 TV가 각 1대씩 증정되며 총 세 곳의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네이버의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전 세계 라인 이용자로부터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소원'을 모아 이를 실현하는 자선 프로젝트인 '라인 산타클로스'를 진행한다.

라인은 이번 자선 프로젝트를 위해 전용 공식 계정 '라인 산타클로스'를 개설하고,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라인 이용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원'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13일 정오부터 15일까지 라인 공식 계정 '라인 산타클로스'에 소원을 남기면 된다.

모인 소원 중 실현 가능한 것을 선정해 크리스마스 당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선정된 소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라인 팀' 공식 계정을 비롯한 라인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수시로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전달 계획이다.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모바일 프리라이스'는 퀴즈 게임을 통해 굶주리고 있는 전 세계 기아들을 후원할 수 있게 돕는다.

이 게임은 엔씨소프트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협조 아래 개포한 게임으로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자동으로 쌀알 10톨이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적립된 쌀은 기아 난민에게 지급된다.

퀴즈는 영어, 수학, 제2외국어 등 총 15개 영역으로 구성됐고, 특히 영어 영역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수준을 자랑해 교육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퀴즈를 통해 적립한 쌀알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에게 알릴 수도 있어, 자연스레 기부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하이브리드 PC '새틀라이트'

도시바코리아는 13인치 대형 태블릿과 노트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PC '새틀라이트 W30t-A'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태블릿과 키보드독으로 구성되는 분리형으로 키보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4세대 인텔 코어i3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력 소모가 낮지만 그래픽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노트북에서의 작업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

키보드독은 데스크톱 수준의 19㎜ 키 피치, 안정적인 1.2㎜ 키 스트로크로 기존 보조 입력 수단으로 편안함을 극대화했다.

슈피겐 노트북 백팩 2종 출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슈피겐SGP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된 노트북 백팩 '클라스센2'와 '뉴코리드2'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클라스센2는 13인치 노트북 수납이 가능한 크기로 총 14개의 수납공간으로 구성됐다. 겉감으로 강력한 내구성과 방한·방습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으며, 내부에는 도톰한 가죽 소재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도록 제작해 기기를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다.

'타이니팡2' 행사 수익금 전달

모바일 전문 게임기업 컴투스는 '타이니팡2 for Kakao' 이벤트로 조성된 후원금 1000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말리,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지구촌 영유아를 살리기 위한 HIS 캠페인을 후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타이니팡2 for Kakao' '사랑의 500만 별 모으기' 캠페인 프로젝트로 진행됐고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 내 스토리 모드에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제공되는 '별'을 함께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

올해 인기애니 VOD '진격의 거인' 뽑혔다

CJ헬로비전은 11일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부문별 '2013 티빙 인기 주문형비디오(VOD) 순위'를 발표했다.

애니메이션 부문은 '진격의 거인(무삭제판)'이 1위를 차지했다.

'진격의 거인'은 갑자기 나타난 거인들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인류가 거인에 맞서 싸우는 내용의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4월 첫 회가 일본에서 전파를 탄 후 국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뒤를 이어 '하이힐 스타' '웨딩피치' '자이언트 세이버' '지켜줘 쿨리칼' '짱구는 못말려 12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3년 티빙 장르별 VOD 인기 순위

구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1	응답하라 1994	숨바꼭질	진격의 거인 무삭제판
2	응답하라 1997	감시자들	[illegible]
3	화성인 X파일	은밀하게 위대하게	웨딩피치
4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	젊은 엄마	자이언트 세이버
5	무한도전	더 테러 라이브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짱구는 못말려 12기
7	아빠 어디가	관상	[illegible]
8	꽃보다 할배	7번방의 선물	[illegible]
9	[illegible]	감기	짱구는 못말려 11기
10	주군의 태양	브레이킹 던 part2	[illegible]

영화 부문에선 지난 8월 개봉한 '숨바꼭질'이 1위에 올랐다. 숨바꼭질은 전국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스릴러 영화 흥행 1위라는 새로운 기록을 작성한 작품이다. 2위는 '감시자들', 3위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차지했다.

방송 분야에선 올해 최고의 히트작인 '응답하라 1994'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응답하라 1994'는 1994년 서울 신촌을 배경으로 전국 청춘들의 좌충우돌 상경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작인 '응답하라 1997'가 나란히 2위에, 3위에는 '화성인 X파일'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영기자 ljy0403@

미세먼지·화장독 집에서 '쏙'

천연 해독팩 전문가 레시피

직장인 이정희(27·여)씨는 요즘 거울만 보면 한숨을 짓는다. 건조한 겨울 날씨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진 탓에 이마와 턱이 온통 울긋불긋 여드름 투성이다. 비싼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크림, 수분크림까지 주준히 발라보지만 오히려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는 느낌이다.

천연 화장품 전문가 최윤하('천연 해독팩' 저자·청린 라이프)씨는 "시중에 나와있는 화장품은 합성계면활성제나 합성수지 등 화학 성분으로 채워져있다"며 "이런 유해 성분은 피부에 자극자극 쌓여 결국 각종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해독만이 정답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해독팩 레시피를 소개한다. 팩은 눈가와 입가를 제외하고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르고, 15분 정도 지난 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면 된다. /서기원기자 mwillamet@seoul.co.kr

잔주름 막고 윤기 더해줘

◆바나나 우유팩

바나나에는 피부에 윤기를 주는 비타민A와 당분 등 영양이 풍부하다.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 잔주름 예방·노화 방지에 특히 효과적이다.

-**재료** 바나나 2분의 1개, 우유 2큰술, 밀가루 2큰술

-**만드는 법** ①바나나는 덩어리가 없어지도록 으깬다. ②①에 우유를 넣고 섞은 뒤 밀가루로 농도를 조절한다.

열 진정에 보습효과까지

◆오이 쌀겨팩

오이는 수분이 많아 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그을린 피부를 가라앉히는 민간 요법으로 사용됐다. 여기에 보습과 미백 효과가 좋은 쌀겨를 더하면 미백 팩으로 적당하다.

-**재료** 오이 2분의 1개, 쌀겨 가루 1큰술

-**만드는 법** ①오이는 깨끗이 씻어 강판에 간다. ②①에 쌀겨 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자주 화장하는 여성 필수

◆녹두 요구르트팩

녹두는 미백과 화장독 해독에 탁월해 화장을 자주 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 또한 플레인 요구르트는 피부 노화를 완화하고 보습에 뛰어나다.

-**재료** 녹두 가루 2큰술, 플레인 요구르트 1큰술

-**만드는 법** ①녹두 가루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는다. ②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골고루 섞는다.

학생 안전 지켜주는 교복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 엘리트학생복 모델들이 귀가 ... 엘리트 지킴이 교복을 선보이고 있다. 학생복으로는 업계 최초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을 탑재해 '학생 안전 기능'을 적용하고 호주산 메리노 울로 보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씨' 새해모델 이다희 발탁

쌤소나이트 레드는 김수현

패션업계가 2014년 브랜드를 이끌어갈 '새 얼굴'을 발탁하고 젊은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원의 여성 캐주얼 브랜드 씨(SI)는 배우 이다희를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

이다희의 시원한 이목구비와 당당한 모습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적극적인 여성상에 부합해 모델로 발탁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씨는 2014년 봄부터 배우 이다희를 앞세워 광고, 팬사인회 등 다양한 스타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캐주얼 가방 브랜드 쌤소나이트 레드는 배우 김수현과 중화권 톱스타 안젤라 베이비를 뽑았다. 김의정 쌤소나이트 레드 마케팅 본부장은 "두 사람은 브랜드의 도시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전했다.

<이다희> <김수현>

한·중 톱스타의 새로운 만남을 담은 TV 광고는 내년 2월부터 아시아 전 국가에 방영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쇠고기 육포에 사골곰탕 군침 도네!

송년회·선물 대용량세트 강강술래 최대 40% 세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 모임과 선물 준비로 부담이 커진 고객들을 위해 가공식품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송년 세일을 벌인다.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sflaman.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 5팩·15인분)를 40% 할인된 3만2400원에 판매한다.

곰탕은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온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인기 메뉴만으로 구성된 송년세트(한우불고기 500g+숯불양념갈비 520g+한돈양념 500g+돼지양념 500g)도 40% 할인된 6만원에 파격가로 구매 가능하다. 매장에서 먹던 맛 그대로 집에서는 물론 야외 캠핑장이나 여행지 등에서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갈비맛 쇠고기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5900원, 박스세트(10봉)는 4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방부제·변색방지제·발색제를 전혀 넣지 않아 온 가족 영양 간식은 물론 장시간 운전이나 야외 활동에도 잘 어울린다.

한우 정육 부위나 잡육 대신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떡갈비(3세트·1.68kg, 4만2000원)와 흑염지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염자반돈너비아니(3세트·1.08kg·2만52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김민정기자

"화장품 연중 세일 말이 돼요?"

여성 소비자 41% 불신

화장품 업계의 연중 세일로 상당수 소비자들이 화장품 가격에 불신을 갖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나화장품의 세니떼뷰티샵은 10~40대 여성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1.4%가 업계의 연중 세일에 문제가 있다는 답을 내놨다고 11일 밝혔다.

연중 세일에 부정적인 응답자 가운데 52%는 "평소 제품을 구매하면 손해 보는 것 같다"고 답했고, 37.2%는 "제품 가격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세일 정책이 화장품 업계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소비자들은 화장품 가격 불신(60.4%), 제품의 품질 저하(20.3%), 국내 화장품 브랜드 불신(20.3%) 등을 우려했다.

화장품 구매 장소로는 42.8%가 브랜드 로드숍, 14.2%는 온라인 채널을 꼽았고, 백화점(13.4%), 방문 판매(8.6%), 홈쇼핑(7%) 등이 뒤를 이었다. /박지원기자

여성 애주가들 위한 '부드러운 유혹'

저도주 '설중매 스파클링' 출시 인기몰이
피부보습 성분 추가된 '컨디션 레이디'도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연말 회식이나 송년회를 고민하는 여성 직장인들을 겨냥한 관련 업계의 마케팅이 활발하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주류와 관련해 업계는 여성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오래다.

청수 청하 와 단산 매실주 '설중매 스파클링'을 판매하는 롯데주류는 최근 여성 애주가들이 자주 찾는 일본식 선술집이나 소주방 등에서의 판촉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술집 판촉 행사는 주로 소주나 맥주 위주로 이뤄졌지만 저도주를 찾는 여성 고객이 크게 늘면서 방향을 전환했다.

또 이 회사는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캠페인 광고와 시트콤 형식의 동영상 등 다양한 감성 콘텐츠를 제작해 20~30대 여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거나 여성들만의 일상을 소개하는 콘텐츠 개발이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이 주효하면서 최근 주류 시장 침체 속에서도 청하와 설중매 스파클링은 매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하이트진로도 연말 송년회에 매실주 '매화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주요 소비자인 20대 여성을 상대로 '매화수 스윗 드링 레시피 콘테스트'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20대 여성이 직접 매화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요리를 겨루는 이벤트로 총 상금이 1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프리미엄 매실 원액에 화이트 와인을 더한 매실주 '메이(MAY)'를 출시한 보해도 여성 대상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당당한 도시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작해 모델로 내세웠고, 공식 페이스북에 "MAY 언니들의 수다주"를 콘셉트로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식품업계도 송년회를 앞둔 여성 애주가들을 위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송년회 시즌을 앞두고 업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숙취해소음료 '컨디션 레이디'를 출시했다. 1992년 첫 컨디션 출시 이후 20여 년간 남성 소비자 겨냥 전략에서 최근 숙취해소음료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감이 희석되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성용 제품을 내놨다.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위와 간 손상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품의 주요 성분은 유지하면서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과 지방간 치료와 신장 보호 효능이 있는 성분까지 추가했다.

/정영일기자 eens@metroseoul.co.kr

다양한 벨기에 맥주 이 잔에 마셔야 제맛

지난 10월, 벨기에 대표 화이트 맥주 호가든(Hoegaarden)(사진)이 '바이어챗'의 '수입 맥주 베스트 3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유럽의 맥주 강국들이 점령하고 있는 '비어 벨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은 호가든의 고향인 벨기에다.

벨기에 맥주의 차별화되는 특징은 '다양한 종류'를 꼽을 수 있다. '맥주 순수령'이 있던 독일과 달리 원료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미생물을 더해 맥주를 빚거나 약초, 허브, 과일 등을 사용해 맛을 내고 개봉 맥주도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 라거 에일 및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발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벨기에 맥주는 고유의 맛과 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주는 '전용잔'과 '음용법(Ritual)'으로도 주목받는다.

먼저 호가든 전용 잔은 두꺼운 육각 글라스로, 맥주의 차가움을 유지하여 특유의 구름 거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전용 잔에 3분의 2 정도 호가든을 따른 후, 병을 한 바퀴 돌려 병 속에 남아 있는 효모를 활성화시킨 다음 글라스에 새겨진 로고의 위치만큼 거품을 내 따라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다.

스텔라의 전용 잔은 '성배'라는 뜻의 챌리스로, 9단계의 음용법을 거친다. 법의 첫 번째는 빠른 속도로 흘려버려 공기와 닿은 맥주가 산화돼 맛을 변질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어 챌리스를 45도로 기울여 맥주를 따르다가 똑바로 낮게 들어 따른 후 병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드롭을 위해 재빨리 잔을 옮기고 폼 커터를 45도 각도로 뉘어 거품을 정리한다. 잔 위로 솟은 큰 거품은 터지기 쉽고 다른 거품까지 날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이다. 부드러운 거품이 3㎝ 정도 생성되게 따른 다음 전용 잔 외부에 묻은 맥주를 씻어내고 드립 캐처를 끼워낸 후 마시게 된다.

레페는 특유의 카푸치노만큼 풍부한 거품을 최상으로 부드럽게 즐기게 해주는 전용 잔 '고블릿'을 이용하게 된다. 고블릿은 잔 입구가 넓어 미세한 향을 같이 들이킬 수 있고, 나무가 있는 볼의 형태는 손으로 맥주의 온도를 높여 향의 발산을 돕는다.

/정영일기자

"60㎝이하 미니트리 구경하세요"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4일까지 크리스마스를 맞아 본점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트리 18가지 이번 특을 판매에 나섰다. 인기 제품은 보관이 용이한 30~60㎝ 미니 트리로 크기가 작아 TV 선반이나 테이블 등 다양한 곳에 연출이 가능하다. 오너먼트와 전구 등으로 꾸며진 미니 트리의 가격은 2만5000원에서 12만원까지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뉴스 & 뉴스

오비맥주 사랑의 연탄나눔

● 오비맥주는 11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일대에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만원의 행복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엔 장인수 사장과 8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3만 장(1700만원)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의 연탄을 노원구 중계본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0가구에 직접 배달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눴다.

맥스生' 700만 상자 판매

● 하이트진로는 11일 자사의 100% 보리 생맥주 맥스생(生)이 음용해단 700만 상자(1상자=500㎖X20병 환산 기준)가 판매됐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10월 출시된 이 상품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며 누적 판매량 3200만 상자를 넘어섰으며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생맥주에 오르며 생맥주 시장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샴페인 '멈' 코스요리 선봬

●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자사 샴페인 브랜드 멈(G.H. MUMM)이 있는 아메리칸 레스토랑 '테번 38'과 함께 특선 코스 메뉴를 선보인다. 2명을 위한 코스 메뉴로 에니언 수프와 리코타 치즈를 곁들인 토마토샐러드 이외에 메인 코스로 토마토 소스의 돼지 족 요리와 트러플 향이 가미된 폭립, 멈 코르동 루즈(375㎖) 등이 제공된다. 가격은 15만원.

엑스' 코스트코서 판매

● 여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퓨전 리큐르 '엑스-레이티드'가 멤버십 할인 매장 코스트코 홀세일즈 전 매장에서 판매된다. 이미 휴롬리스와 이마트에서는 연말 특별 구성으로 375㎖ 엑스-레이티드 1병에 토닉워터와 전용 글라스가 포함된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마다가스카르 메안 프랑스 레위니옹섬에서 재배된 최상품의 밀을 엄선해 9번의 증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최상급의 보드카를 바탕으로 시칠리아산 붉은 오렌지와 망고, 열대과일 향이 더해졌다. 가격은 4만8990원

관광공사 필리핀 돕기 성금

한국관광공사 임직원들이 최근 태풍 피해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돕기 위해 나섰다.

우선 공사 임직원들은 성금으로 약 3000만원을 모금해 지난 10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제시 멘다올라(필리핀 인기 배우 겸 모델)와 함께 라몬 알 히메네즈 필리핀 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 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마닐라 북부 빈민 지역 말라본에 위치한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 의료진이 참가하며 이들은 인근 지역 빈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진료를 실시한다.

한편 공사는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17일부터 3일간 빈민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재웅기자

'겨울 속 여름' 찾아 떠나볼까

항공사 발리 등 특가 잇따라

항공사들이 겨울을 맞아 다양한 특별 요금을 선보이고 있어 여행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지난 9월부터 선보인 인도네시아 주요도시 특가 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 특가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요그야카르타, 반다르람풍, 스마랑·수라바야, 솔로시티 지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편도 22만원, 왕복 49만원(세금 별도)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새해맞이 인천~발리 특가는 53만원(세금 별도)이라는 합리적인 요금에 일출이 아름다운 발리에서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발기간은 23~27일, 도착 기간은 2014년 1월 1 5일이다.

이 항공사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최대 8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Business Class) 특가도 선보였다. 이달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간 발리로 출발하는 고객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항공권을 99만9000원(세금 별도)에, 2014년 3월에 발리로 출발하는 고객에게는 81만 9000원(세금 별도)에 제공한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모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제공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국내선 운항 편수 10만 편 돌파를 기념해 오는 24일까지 출발하는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의 편도 항공권 일부 좌석을 총액 운임 기준 2만 9100원에 선착순 판매한다.

제기항공사 에어아시아도 보라카이행 항공권 특가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세부 및 보라카이 노선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되는 항공권 가격은 서울~세부 칼리보(보라카이) 6만원부터(제세금 포함), 부산~칼리보는 편도 5만5000원부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행 기간은 내년 6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이며 예약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정재웅기자 sme@metroseoul.co.kr

배우 김아중이 장기인 로맨틱코미디로 돌아왔다. '미녀는 괴로워(2006)' '나의 PS 파트너(2012)'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로코퀸'으로 떠오른 그는 19일 개봉 예정인 '캐치미'에서 또 한 번 사랑스러운 매력을 마음껏 뽐낸다.

/박진영기자 talk@metroseoul.co.kr

"뻔뻔하게 연기… 관객 맘 훔칠 것"

로코물 '캐치미'로 돌아온 김아중

 # 도둑·경찰의 아찔한 로맨스

김아중이 '나의 PS 파트너' 이후 1년 만에 선보이는 이 영화는 촉망받는 프로파일러 이호태(주원)가 10년 전 첫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전설의 대도가 된 윤진숙(김아중)을 우연히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이 영화에서 김아중은 어떤 벽도 뚫는 최고의 절도범으로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후배 양성에도 힘쓰지만 경찰이 된 이호태를 만난 후 행방을 낮추기 위해 절도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윤진숙을 사랑스럽게 연기한다.

연이어 로맨틱코미디로 돌아온 것에 대해 "한 장르에 편중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했다"면서 "장르가 아닌 영화 내용에 집중해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 먼저 했다.

이전에 출연했던 로맨틱코미디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했기에 이번 작품에도 높은 기대가 쏠려있다. 그러나 김아중은 흥행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아 보였다.

"지난해에는 부담이 돼서 개봉이 다가올수록 떨렸죠. 그땐 6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엔 마음이 편안해요. 흥행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죠."

#보디슈트 입은 모습 감탄 연발

'미녀는 괴로워'에서 특수 분장을 하는 등 매 작품마다 남다른 노력으로 영화의 흥행을 이끈 그는 이번에도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애썼다.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설렘인 첫사랑과 대도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 역할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쉽지 않은 캐릭터였어요. 첫사랑의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도둑 역할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우고 뻔뻔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맨틱코미디는 경쾌해야 하기 때문에 늘 기분을 밝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코믹한 춤이나 인기적인 영상들을 찾아봤답니다." (웃음)

영화 '도둑들'의 전지현처럼 와이어 액션을 펼쳐 도발적인 매력도 뽐낸다.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는 보디슈트를 입은 모습은 남성은 물론 여성 관객들의 감탄마저 자아낼 정도다. 이에 대해 "감독님이 화면을 예쁘게 잡아주셨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다"며 웃었다.

전설의 대도 열연 | 순수·도발 매력
주원과 호흡 척척 | 연하 사귄적 없어

#주원과 외모 닮았다고요?

그동안 '미녀는 괴로워'의 주진모, '나의 PS 파트너'의 지성 등 주로 연상과 호흡을 맞춰 온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연하인 주원을 상대역으로 만났다. 다섯 살 연하인데도 연애선이 모락모락 필 정도로 남다른 호흡을 자랑했다.

"연하와의 작업은 처음이라 촬영 초반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더욱이 주원이는 영화로는 첫 주연작이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 자연스러운 연기 호흡을 위해 이전에 작품을 했을 때와 달리 주원에게는 먼저 다가가고 꼭 꼭히 맞추려고 했어요. 문자메시지도 보내보고 감독님에게도 질투하지 않을 테니 주원이를 더 신경써달라고 말했죠."

주원과 외모가 닮은 것 같다는 말에 "지성씨와 연기할 때도 그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또 듣게 된다"면서 신기해했다. 이어 주원에 대해 "이번 작품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주원이 출연한 드라마 '각시탈'을 찾아봤는데 풋풋하더라. 겪어보니 생각이 어른스럽다"고 칭찬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연하와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어느 날 불현듯 주원이가 '누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어? 외로워 보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나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으니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도 영화 무대인사를 다니면서 보낼 것 같아요." (웃음)

사진/이동해·라운드테이블 디자인/이은지

star bag

빌보드 특집 6개 부문 1위

가수 **싸이**가 미국 빌보드지 연말 특집에서 6개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싸이는 빌보드 12월호에서 '댄스·일렉트로닉 스트리밍 송 아티스트' '랩 스트리밍 송 아티스트' '월드 디지털 송 아티스트' 등 3개 아티스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댄스·일렉트로닉 스트리밍 송' '랩 스트리밍 송' '월드 디지털 송' 등 3개 노래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연말 티켓파워 최강자 등극

김준수가 연말 공연가에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그는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플레이디비 12월 첫째 주 주간 예매 랭킹에서 '디셈버' 로 뮤지컬 부문, '2013 시아 발라드&뮤지컬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로 콘서트 부문 1위에 올랐다. 대형 공연이 즐비한 연말에 창작극으로 1위에 올라 더욱 화제를 모은다. 콘서트 티켓은 15분 만에 1만3000장이 모두 팔려나갔다.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

송강호가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송강호는 22.5%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는 2008년 이후 5년 만에 정상에 다시 올랐다. 그는 올해 '설국열차'와 '관상'의 주연으로 각각 900만 명 이상을 동원했고, '변호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상속자들' 의상 자선경매

배우 **이민호**가 SBS 수목극 '상속자들'에서 입었던 옷을 자선 경매에 내놓는다.

이민호의 극중 의상은 스타일리스트 에이전시 유포리아 서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16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분으로 10벌이 나올 예정이며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

음악·방송계도 인용 바람 불다

2013년 대한민국 1인 가구는 453만 명에 달한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25%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1인 가구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용품에 이어 최근에는 문화계에도 1인용 바람이 불고 있다.

소셜데이팅 이음은 서비스 론칭 3주년을 맞아 오직 싱글만을 위한 앨범 '이것은 1인용 음악입니다'를 발표했다. 인디 레이블의 신화 붕가붕가레코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이번 앨범은 싱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노래들을 엮었다. 총 7곡으로 구성됐으며 싱글들의 소소하면서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

앨범 타이틀곡 '3:45 AM'은 아마도이자람밴드 보컬 이자람이 부른 곡으로 담담하고 몽환적인 음색이 새벽의 쓸쓸함을 잘 표현했다. 이 밖에도 더 이상 괜찮다고 웃지 말고 울라고 말하는 나잠 수의 '울어요 그대', 카드빚을 지고 난 후의 마음을 표현한 김간지×하헌진의 '카드빚 블루스', 혼자 먹는 저녁 식사의 외로움을 담은 눈뜨고코베인의 '나 혼자 먹어야지' 등이 함께 실렸다.

싱글만을 위한 앨범 출시 성시경 공연엔 솔로 좌석

이음의 박희은 대표는 "화려한 싱글의 삶을 누리는 싱글족도 분명 있겠지만 대다수의 싱글들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무친 삶을 살고 있다"며 "이번 앨범은 어설픈 위로 대신 있는 그대로의 우리들의 일상을 담아 역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30~31일 열리는 성시경 연말 콘서트 '2013 마지막 하루'에는 싱글을 위한 '솔로 배려자 좌석'이 마련됐다. 그는 "성시경의 콘서트는 커플들이 독식하는다"는 솔로들의 성토에 따라 이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식사를…' '나 혼자 산다' 싱글턴 삶 다룬 프로 봇물

이름과 휴대번호, '나 홀로 관객'으로 공연 관람에 임하는 각오를 적어 공연기획사 측에 보내면 추첨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각 32명씩 총 64명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한다.

1인 가구 드라마를 표방하고 나선 tvN '식사를 합시다'는 1인 가구의 솔직한 일상과 로맨스를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식사를 합시다'에서는 1인 가구 3년차 지도녀(이수경), 1인 가구 영문자(윤소희), 1인 가구 9년차(윤두준) 세 사람이 따로 또 같이 함께 사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남모를 외로움과 애환, 라이프스타일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가 트렌드가 된 현 시점의 혼자 살아가는 연예인의 모습을 진솔하면서도 허심탄회하게 들어내고 있다. 방송인 노홍철을 비롯해 흡소름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40대 노총각 김광규, 외모와 달리 카더 아날을 덮고 자는 데프콘, 살림 초보 싱글남 전현무가 솔로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하희철기자 ssw@metroseoul.co.kr

/크롬엔터테인먼트 제공

크레용팝 외신홍보상 · "세계에 한국 알린 공"

걸그룹 크레용팝(사진)이 올 한 해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았다.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는 크레용팝이 10일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3 서울외신기자클럽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참석해 외신홍보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외신홍보상은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이 전 세계에 한국을 긍정적으로 홍보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크레용팝이 6월 발표한 히트곡 '빠빠빠'와 직렬 5기통 춤 안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미국 빌보드, ABC, 타임 등은 '빠빠빠' 열풍을 제2의 '강남스타일'로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가수 부문의 크레용팝 외에도 스포츠 부문에서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활동 중인 류현진, 영화 부문에서는 국내에서 930만 관객을 동원한 '설국열차' 등이 수상했다. /유순호기자

'연기대상' 마이크 잡는 김우빈

'상속자들' '친구2'로 드라마·영화 쌍끌이 흥행 대세남 입증

연말은 나의 것!

최근 영화 '친구2'와 SBS 수목극 '상속자들'의 성공에 중심으로 '대세남'으로 뜬 김우빈(사진)이 올 연말 연예계를 종횡무진하며 높아진 인기를 과시한다.

김우빈은 31일 방송 예정인 '2013 SBS 연기대상'의 MC를 맡아 시상식 진행자로 변신한다. 현재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단독 진행 중인 그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재치 MC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계획이다.

드라마 종영 직후에도 정신없이 바쁘다. 소속사 관계자는 11일 "중국의 한 위성TV에서 주최하는 드라마 시상식에 '상속자들' 출연진과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또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들어온 광고가 여러 개 있어 일련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속자들'에서 최영도 역을 맡은 김우빈은 악랄하게 친구들을 괴롭히다가도 은상(박신혜)을 향해 애틋한 짝사랑을 펼치는 등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가며 캐릭터를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해 여성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또 최근 25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 '친구2'를 통해 스크린 데뷔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진영기자 bak0427@

원더걸스 소희 팀 탈퇴

원더걸스의 소희(사진)가 팀을 탈퇴하고 소속사도 떠난다.

원더걸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1일 "소희가 개인적으로 변화의 시기라 판단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연기자로 전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많은 상의 끝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멤버인 선예, 예은, 유빈은 재계약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순호기자

'예체능' 서지석 "유리몸 별명"

KBS2 '우리동네 예체능'이 1990년대 농구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서지석(사진)은 "나는 요즘 너무 많이 다치고 계체서 '유리 몸'이라고 소문이 났다. 무릎도 안 좋고 얼마 전에 허리도 다쳤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방송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모두가 목숨 걸고 뛴다. 잔부상은 다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예체능'의 농구 편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혁이다. '김혁 덩크'가 화제가 될 정도로 뛰어난 농구 실력과 뛰어난 외모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원래 처음은 다 같이 뭐합해서 팀을 이룬 것만으로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시청률이다"며 "농구를 좋아해주셔서 시청률도 높아지고 농구 열풍이 불길 바란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팀내 휴워점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첫 출연한 이혜정은 "예전에 패션 피플들만 나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젠 많이 알아봐주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장서윤기자

11일 열린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에서 테너 김범진(왼쪽부터), 소프라노 서활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이자경 지휘자가 관객들과 다함께 캐럴 '흰눈사이로'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 손진영 기자

'물망초'에 브라보! 캐럴에 기립박수!

메트로신문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인 디셈버' 객석 채운 관객들 "최고의 밤"

저무는 한 해의 밤,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광화문 일대는 사랑의 온기로 따뜻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가 주최한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가 11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두 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는 2002년부터 매일 아침을 힘차게 열어온 메트로신문이 이웃간의 사랑나눔,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매년 연말마다 무료로 진행하는 공연이다. 지난 수년간 메트로 독자들과 여러 자선 단체,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왔다.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의 깊이도 더해진 이 공연은 올해도 성악가들의 천상의 목소리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클래식 선율로 600여 석의 콘서트홀을 꽉 채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이자경 지휘자가 이끄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페라 '세미라미데' 서곡으로 이날 공연의 막을 힘차게 열었다.

바로 이어 각종 어린이 기타 콩쿠르 1위를 휩쓴 클래식 기타계의 샛별 존 더 현 군이 협연자로 깜짝 등장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이 인상적인 줄리아니의 '기타협주곡 제1번 A장조'를 열두 살의 현 군이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며 현란한 손놀림으로 연주하자 관객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냈다.

메드로... 초청에 단체로 공연장을 찾은 수녀들이 로비에서 공연 팸플릿을 보며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 지휘자는 이 곡이 끝난 뒤 다음 곡인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를 소개하며 클래식이 생소할 수 있는 관객들을 위해 친절한 해설을 곁들이기도 했다.

2부에서는 최근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며 성악계의 기대주로 뜬 테너 김범진,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소프라노 서활란이 귀에 익은 가곡과 뮤지컬 및 오페라 명곡들을 불러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먼저 이날 눈이 내린 날씨에 걸맞게 김범진이 제1회 대학가곡제 대상 수상작인 김효근의 '눈'을 애잔한 감성으로 부르며 분위기를 서서히 띄웠다. 다음으로 서활란이 곱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경쾌한 라엔카발로의 가곡 '아침'을 부르자 관객의 박수가 쏟아졌다.

두 성악가가 듀엣으로 입을 맞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이 흘러나오며 분위기는 완전히 무르익었다. 김범진과 서활란이 각각 '물망초'와 오페레타 '말괄량이 마리에타' 중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를 선보이자 객석 여기저기에서 "브라보"라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힘찬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이 마지막 곡으로 대중의 귀에 익숙한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환상적인 호흡으로 부를 때는 앙코르를 요청하는 박수가 1분 넘게 계속됐다. 성악가들은 앙코르 곡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폭발적인 이중창을 선보였다.

마지막은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캐럴곡인 '흰눈 사이로'를 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기분 좋게 합창하는 것으로 장식됐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전원 기립박수로 감동받은 마음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공연장에는 수녀들이 단체로 발걸음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왔다는 한 수녀는 "수녀들과 직원 서른 명이 초청받아 함께 관람하러 왔다"면서 "감사하고 행복했고 뜻 깊은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선옥기자 sak0427@metroseoul.co.kr

첫 만남서 환상의 호흡 소프라노 서활란·테너 김범진

"힘겨운 연말 에너지 됐으면…"

소프라노 서활란(사진 오른쪽)과 테너 김범진(왼쪽)이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서활란은 "메트로신문과는 2003년 제네바 콩쿠르에 나갔을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내 수상 소식이 메트로신문에 실려 많은 곳에서 축하 전화를 받았기에 그 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메트로신문이 좋은 취지로 연 음악회에서 연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동과 에너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오페라 '카르멘'을 마친 그는 "내년에 더 좋은 연주로 찾아가겠다. 독자 여러분도 연말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김범진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반이다. 아직 학생이라 지하철을 타면서 메트로신문을 많이 본다"면서 "학생 신분으로 연주해서 영광이며 어려운 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내년에 오스트리아로 유학갈 예정"이라면서 "한 해가 빠르게 흘러갔는데 독자 여러분도 내년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연주회를 통해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은 서로 칭찬을 주고 받기도 했다. 서활란은 김범진을 향해 "노래를 정말 잘하고 요즘 뜨는 테너"라면서 활짝 웃으며 극찬했고, 김범진은 "서활란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제2의 조수미'라고 불리는 서활란은 국내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등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김범진은 지난해 오스트리아 국제 한스 가보르 벨베데레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 올해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1위까지 석권한 성악계의 기대주다. /박선옥기자

초록 차밭에서 오색 '불빛샤워'

'보성차밭 빛 축제' 내일 대형 트리 점등과 함께 개막

오는 13일 보성군 보성차밭에서는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대형 트리가 불을 밝힌다. 전남 보성군 회천면 보성차밭 일원에서 열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일까지 52일간의 대장정을 이어가는 '보성차밭 빛 축제'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겨울밤을 화려하게 밝혀줄 빛의 향연을 즐겨보자.

◆푸르름에 더해지는 화려함

보성차밭은 산 전체를 녹차 잎이 덮고 있을 정도로 드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말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녹차의 푸르름의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런 규모의 놀라움과 대중적인 친근함으로 인기가 높은 녹차로 인해 그동안 보성은 녹차의 고장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매년 봄에는 '보성녹차대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겨울밤에 찾는 차밭은 환상적인 불빛이 더해져 이제 전국의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되고 있다. 은은한 녹차 내음과 형형색색의 조명이 만드는 하모니가 방문객들에게 설렘과 함께 겨울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된다.

◆내일의 희망을 밝히는 불빛

지난 2000년 보성군은 밀레니엄 트리 점등으로 축제의 첫 시작을 알렸다. 높이 120m, 폭 130m의 대형 트리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의 웅장함을 갖췄다.

봇재다원과 다향각 전망대 주변 도로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눈꽃이 내리는 듯한 풍경을 연출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주 행사장에는 차밭 오색 빛 물결, 은하수 터널, 빛의 거리, 포토존, 다짐의 계단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빛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가족, 연인과 함께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희망을 바라며 적는 소망카드 달기 체험 행사도 준비되며 매 주말 상설 공연은 겨울밤 낭만을 더해준다.

◆오후 5시30분부터 쇼타임 시작!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무료로 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방문객들은 점등 시간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점등 시간은 평일 오후 5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이며 주말에는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자정까지 빛이 이어지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새해 첫날 아침 7시까지 불빛이 밝혀진다.

또 보성군은 올겨울 전력난 예고에 따른 정부 에너지 절감 방침에 맞춰 기존의 일반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해 전력 사용량을 이년의 7분의 1 이하로 낮췄으며 친환경 재활용 기자재를 사용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날짜 12월 13일~2014년 2월 2일(금~일요일)

장소 전남 보성군 봇재다원 및 다향각 전망대 일원

문의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10

구석구석

◆대한민국 국제포토 페스티벌

– 날짜 12월 11~16일

– 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

다큐부터 생태, 현대 사진까지 다양하고 실험적인 느낌의 사진들이 총망라된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해외작가들과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김완기, 은효진, 황영삼 등 원로 작가의 다큐멘터리 사진부터 한국 파노라마 사진의 선구자 고헌재 작가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영동곶감축제

– 날짜 12월 20~22일

– 장소 충북 영동군 영동체육관 일원

영동 곶감의 참맛을 맛보며 전국 곶감요리 경연대회, 곶감 따기 체험, 난계국악단 공연, 전국 노래자랑, 감 즉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축제 기간 동안에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마련돼 감생과 호두, 표고, 밤 등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상상릴리아페스티벌

– 날짜 12월 16~19일

– 장소 경기 군포시 군포문화센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최정상급 팀들이 가족극을 릴레이로 준비한다. 극단 선물의 전래놀이 뮤지컬 '며느리 방귀이야기'부터 마린보이의 저글링쇼 '나홀로 서커스', 극단 봉의 '아주 특별한 그림여행' 등 다양한 가족극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보성 대표 9가지 맛…그중 으뜸 '벌교꼬막'

보성 하면 차밭과 녹차가 먼저 떠오르지만 보성은 '보성 9미'가 있을 정도로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다.

보성 9미 중 으뜸은 벌교 꼬막이다. 벌교 지역에서 생산되는 꼬막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간 해독은 물론 보양 음식으로도 좋다. 물론 그 맛 역시 전국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기가 막히다. 특히 보성에서는 꼬막정식(사진), 꼬막전, 양념꼬막, 꼬막회무침, 꼬막탕수육 등을 맛볼 수 있는데 대표 식당으로는 보성읍에 도성식당, 수복식당이 있으며 벌교읍에는 국일식당, 벌교식당, 벌교꼬막식당 등이 있다.

◆녹차 먹인 돼지

보성의 또 다른 별미는 보성 녹돈이다. 녹차 잎을 사료에 혼합해 먹여 키운 녹돈, 그리고 녹우는 육질이 연하고 육류 특유의 냄새가 없어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녹돈과 녹우를 찾는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함량도 적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보성에서는 어디를 가든 녹돈과 녹우를 맛볼 수 있는데 녹향우, 녹차골 보성녹돈, 청마루, 한국식당이 유명하다.

녹차 잎 먹여 키운 녹돈·녹우 갯벌서 잡은 짱뚱어탕 별미

◆토속 음식은 별미 중의 별미

꼬막과 녹돈 외에도 짱뚱어탕, 장어탕, 전어회, 바지락회 등이 보성 9미로 꼽히는데 특히 짱뚱어탕과 양탕은 보성의 대표적 토속 음식들이다. 우선 갯벌에서 많이 잡히는 짱뚱어를 시래기에 방앗잎, 깻잎 등과 함께 끓여낸 짱뚱어탕은 보성 9미 중의 별미이며 그때 그가든, 두무포산장 등 벽 등에서 맛볼 수 있다. 또 보성 양탕은 염소고기를 사용하는 보성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얼큰하게 끓여낸 국물맛이 일품이다. 보성양탕, 가마솥식당, 미락식당이 알아주는 곳이다. /황재용기자

"한국산 저격수 왔다"

日언론, 오승환 입국 대서특필… "한신 수호신 22번 내 색깔로"

한신 타이거스에 입단한 오승환(31·사진)이 입국부터 일본 언론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오승환은 10일 한신 입단 기자회견을 위해 오사카에 도착했다. 일본 언론 스포츠닛폰은 11일 오승환의 입국 현장을 상세히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얼린 것 처럼 하는 압도적인 기운과 살기를 풍기며 입국했다"고 전했다.

오승환의 인상이 꽤 강렬했는지 이 매체는 "얼룩무늬 회색 재킷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오승환은 마치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격수를 떠오르게 한다"며 "'일본에 도착해 설렌다'는 그의 말과 달리 표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한신의 소방수로 일본 통산 220세이브를 남기고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에 진출한 후지카와 규지의 등번호인 22번을 그대로 물려받은 오승환은 "22번은 일본에서 마무리 번호로서 최고의 번호라고 생각한다. 후지카와 선수가 22번의 주인공으로 한신 팬들이 익숙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일본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22번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환은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승환은 11일과 12일은 코칭스태프와의 면담과 개인 거처 문제 해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13일에는 공식 입단식이 예정돼 있다.

/정성호기자 ssw@metroseoul.co.kr

너무 비싼 추신수 '시계제로'

애리조나 다른 선수와 계약 텍사스도 일단 관망 분위기

거액을 쏟아부어 자유계약선수(FA) 추신수(31·사진)를 영입하려던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발을 빼면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애리조나 구단은 시카고 화이트삭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삼각 트레이드로 우타 거포 외야수 마크 트럼보(27)를 영입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풀타임 3시즌을 보낸 트럼보는 통산 타율은 0.250에 불과하지만 통산 홈런 95개, 타점 284점을 올린 전형적인 풀스윙 거포다.

이번 시즌에도 타율은 0.234리에 그쳤지만 34홈런 100타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애리조나는 결은 오른손 거포 트럼보의 가세로 4번 타자 폴 골드슈미트와 함께 묵직한 중심타선을 구축하게 됐다.

결국 애리조나가 트럼보의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추신수 영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MLB닷컴도 "애리조나가 트럼보를 영입한 것은 더 이상 추신수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텍사스와 함께 추신수 영입 경쟁 2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였던 애리조나가 사실상 발을 빼면서 다시 텍사스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텍사스도 추신수의 몸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라 협상이 쉬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성호기자

"어딜 차는 거야" 1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유벤투스의 아르투로 비달(왼쪽)이 갈라타사라이 알베르트 리에라의 거친 수비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폭설로 인해 전반 33분 만에 취소됐다.

/AFP 연합뉴스

손흥민 "아깝다! 챔스리그 데뷔골"

수차례 찬스 놓쳤지만 16강행 호날두 조별리그 최다골

손흥민(21)이 활약한 독일 프로축구 바이엘 레버쿠젠이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레버쿠젠은 11일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아노에타 경기장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를 1-0으로 꺾었다. 승점 10을 기록한 레버쿠젠은 샤흐타르 도네츠크(승점 8)를 밀어내고 조 1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14)와 함께 16강에 올랐다.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후반 46분까지 뛰며 상대를 압박했다. 전반 40분 중거리 슛과 후반 26분 문전에서의 오른발 슛은 아깝게 골대를 빗나갔다. 후반 43분에는 단독 드리블로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맞기도 했다. 레버쿠젠은 후반 2분 외메르 토프락의 골로 승리를 거뒀다.

한편 이날 FC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1골을 넣은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역대 최다골(9골)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뤼트 판 니스텔로이(2004~2005시즌), 에르난 크레스포·필리포 인자기(이상 2002~2003시즌) 등이 기록한 8골이었다.

/유순호기자 sjh@

이규혁 6회 연속 올림픽 출전

"노메달 아쉬움 털고싶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맏형인 이규혁(35·서울시청·사진)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여섯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이규혁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11일 공개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출전권 획득 현황에서 남자 500m와 1000m 부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을 시작으로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까지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다.

국내에서 올림픽에 6번 출전한 선수는 없다. 5번 출전한 선수는 이규혁 외에 시각의 이은철, 알파인 스키의 허승욱, 핸드볼의 윤경신과 오성옥 등 4명이 있다.

이규혁은 13세에 태극마크를 달고 20년 이상 한국의 간판 스프린터로 활약했다. 세계 스프린트 선수권대회에서 4차례, 종목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1차례 정상에 올랐고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통산 14개의 금메달을 땄다.

그러나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다. 한 차례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이규혁은 "메달이 없어서 6번째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내게 올림픽은 메달이 없는 대회. 이게 때문에 그저 기분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쉬움을 털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류현진 신인왕 투표 6위

류현진(26·LA 다저스)이 팬과 야구 관계자들이 뽑는 신인왕 투표에서 6위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1일 올해의 업적 부문별 수상자와 득표율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10명이 후보로 오른 신인상 부문에서 4.0%를 득표, 에번 개티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 4.7%)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 말린스)가 47.7%를 얻어 수상자로 선정됐고 야시엘 푸이그(다저스)가 18.7%로 뒤를 이었다. 셸비 밀러(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8.2%)와 마이어스(탬파베이 레이스 8.1%)가 각각 3~4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선수만 두고 따지면 페르난데스, 푸이그, 밀러, 개티스에 이어 5위다.

/정성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1일)

팀						합계
KT	30	23	16	15		84
동부	17	10	19	24		70
LG	23	13	21	11	12	80
오리온스	16	16	16	20	7	75
KDB생명	8	16	11	25		64
하나외환	12	15	14	11		52

프로배구 전적 (11일)

우리카드	3	1	LIG손해보험
도로공사	3	1	GS칼텍스